

2020년 9월 2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정책과 과장 최명철(044-201-2511), 사무관 한민(2517)

구제역방역과 과장 이제용(044-201-2531), 사무관 신만섭(2535)

검역정책과 과장 장재홍(044-201-2071), 사무관 김지호(2072) / 제공일: 9월 22일(총 5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

- 전국 일제소독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귀성·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접경지역에서 지속 확인되고(총 740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도 중국 등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번 추석도 어느 때보다 방역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 파주 98 연천 282 포천 18 철원 33 화천 281 춘천 2 양구 13 인제 9 고성 4 (9.21.기준)

** (AI) 작년 동기(1.1~9.18) 대비 전 세계 발생 건수 2.8배 증가(199건→554), 중국·대만·러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발생 2배 증가(91건→186)
(구제역)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하여 7개국 28건 발생('20.1월~8월)

□ (일제 소독) 매수 수요일 운영하던 “축산 환경·소독의 날”을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로 임시 지정하고,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 캠페인) 지자체·검역본부·농협·생산자단체에서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차량이 일제소독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지자체·검역본부에서 소독 실태를 점검한다.
 - 축산농가(돼지·가금 등 약 24만호)와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86백개소)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축산차량(61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방역차량 투입)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주요도로, 양돈농장,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집중소독이 필요한 곳은 지자체, 농협, 군 부대에서 방역차량(약 947대)을 최대한 투입한다.
- (대국민 홍보) 귀성객과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 (귀성객 방역 협조) 고향 방문시 ①축산농장, ②철새도래지, ③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일대 방문 금지와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 방역 유의사항을 홍보한다.
 -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입구, 철새도래지 등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 방역 강화)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통제, 축사 내·외부 및 농기계(경작 겸업시) 소독 철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

- 지자체·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홍보 리플릿**(약 10만 부)을 배포하고, **반상회 회보**(행안부 협업), **마을방송**, **현수막**, **SNS**(생산자단체, 농협 등), **문자메시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

* 외국인 종사자도 16개 언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홍보 강화

- 특히 **양돈농장 종사자가 벌초·성묘**를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고(지자체·한돈협회),

-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농협·산림조합 등 벌초 대행 서비스** 인력들에게도 **차량·장비 소독**,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시 신고** 등 **방역수칙**을 지속 안내한다.

○ **(국경검역 강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방문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검색 활동과 검역 준수사항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 중국·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검역 전용 엑스레이**, **검역탐지견**을 활용하여 **휴대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한다.

- 추석 전·후 **집중 홍보기간(9.14.~10.13.)**을 설정하여 **기내방송**, **입국장 내 홍보매체**(전광판 등), **열차(공항철도) 내 광고판**, **온라인 매체**(5개 언어로 웹툰 제작)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AI·구제역 모두 엄중한 방역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 기본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 **귀성객들도 축산농장 방문 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축산농가 방문자제,
농장 출입통제 철저히!**

**부득이 방문 시
가축 접촉 금지, 소독 철저**

**매일 농장 주변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전용장화로 갈아신기
손 씻기(손 소독), 신발 소독 철저**

농장 내외 쥐·파리 제거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 사용 금지,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사용 금지**

**제품에 표시된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농장울타리, 그물망(조류차단망),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상태 점검**

**해외에서 귀국 시 또는 국제우편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육포, 소시지, 만두, 햄 등)**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 사용, 소독제 희석배수 미준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농장비·도구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접경지역 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부득이 추석 성묘 시 신발·의복 소독 및
농장 출입 전 샤워, 옷 갈아입기 철저히



접경지역 멧돼지 ASF 발생지역 영농활동에
사용한 트랙터 등 영농장비·도구 세척·소독 철저,
농장 반입금지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시군 환경 부서에 신고

조류인플루엔자(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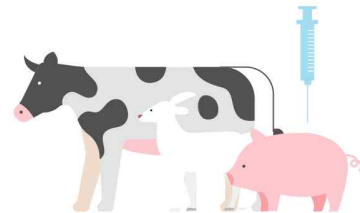


철새 도래지 방문금지, 논·밭 출입 자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우회도로 이용

구제역



구제역 백신 제품별
사용방법에 따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또는 돼지에 남은 음식을 먹이거나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는 적발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독·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